

## 미국 동물보호위반국 무차별 무역보복

펠리법 입법 한국 위반국가 지목... 무역보복 우려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보호위반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반하는 나라에 대해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을 이미 입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1월 2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련 야생 동식물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도 수입을 규제토록 하는 내용의 '펠리법'을 공식 입법화했다.

이 법률은 특정 국가가 수산물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미 내무장관이 이 사실을 입증하여 미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관련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해 무차별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당국이 미 내무부의 펠리법 담당부서인 '수산물 및 야생동식물 관리실'에 확인한 결과 미국은 현재 국제환경보호협약 위반 국가의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허용하고 있는 펠리법이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련부처가 검토중이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대외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최근 추세로 보아 이 법이 대외무역규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보복이 우려되고 있다.

세계야생동물보호기금(WWF), 야생동물협회(NWF) 등 환경보호단체들은 한국을 야생동물 보호위반국으로 지목, 미국 정부에 강력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또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 상임위원회는 한국, 대만, 중국, 예멘 등 4개국에 대해 코뿔소 뿔의 판매와 교역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오는 9월부터 1백19개 회원국들은 이들 4개국과 야생동식물제품 교역을 금지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코뿔소 뿔을 비롯한 녹용, 호랑이 뼈, 웅담등을 한약재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야생동물 보호위반국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CITES에의 가입을 추진키로 했으나 미국등으로부터 무역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코뿔소 뿔을 비롯한 희귀동물의 한약재 사용관행을 단속하고 동물학대국이라는 국제적인 이미지를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새건강신문>

## 그린피스

### 「환경보호」 깃발 30國에 국가조직

—4백만 회원 예산 “헌금”—

일본 동경에서는 지난 1월10일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전세계 과학자, 정치가, 예술인 및 연예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反플로토늄 선언서를 채택했다. 디 스프링스 아일랜드 노동당 당수, 데이비드 룡이 前뉴질랜드총리,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 톰 크루즈, 가수 빌리 조엘 등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 71년 설립 反核운동

이들은 선언서를 채택한후 수백명의 反核운동가들과 함께 시내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행사 주관은 그린피스가 맡았다.

그린피스는 일본의 플루토늄 수송선인 아카쓰키號가 프랑스의 세르부르港을 떠날 때부터 이 배가 일본의 도카이港에 도착할 때까지 끈질긴 反플루토늄 운동을 전개했다.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린피스 행동대원들의 격렬한 환경보호운동은 이미 자자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들은 美-蘇의 핵잠수함에 고무보트를 저어가 그대로 부딪히는 목숨을 건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71년에 설립된 그린피스는 세계 각지의 기부금 헌납자 4백여만명이 연간 1억5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모금하는 단체다. 그린피스는 모두 7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 1천1백명의 상근 직원들이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국제적 운동단체로서는 비교적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가장 많은 활동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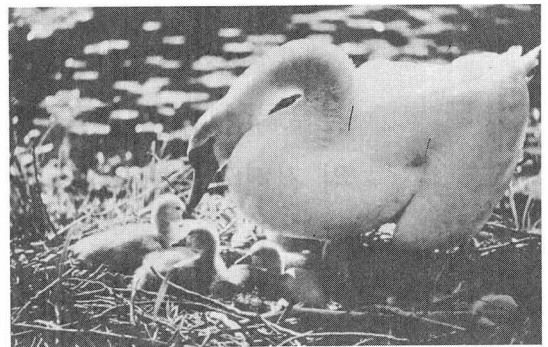
#### “財政집착” 평가도

그린피스는 보다 효과적인 관심끌기를 위해 85년 전위 행동조직으로 「무지개 전사」를 만들어 냈다.

核潛艦을 향해 고무보트를 저어가는게 이들이다. 무지개 전사들과의 충돌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그린피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천만 프랑을 물어준 적도 있다.

그린피스는 국가단위, 국가내 지역단위 그리고 국제단위로 조직돼 있다. 영어약자로 GPI(Greenpeace International)라고 불리는 「국제 그린피스」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다. GPI는 회장, 사무국장, 국제이사회 등을 기본 조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단위 및 지역단위 그린피스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제이사회는 매년 장소를 번갈아 가며 한차례 씩 연례총회를 갖는다.

현재 30개국에 국가단위의 그린피스가 조직돼 있고, 이중 10개국이 국제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라다. 이 10개국은 자체 재정조달을 하면서 GPI의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조직 성장은 주로 기금 헌납회원수 그리고 기부금 총액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 독일회원 70만명

특히 80년대를 거치면서 그린피스는 크게 성장

했다. 관계자들은 그린피스를 71~78년까지를 환경 보호 同好인 수준의 활동시기, 80년부터를 그린피스 국제화 및 「운동 戰士」 활약시기 그리고 지금부터를 다국적 경영관리체 시기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린피스 활동을 오래해온 노장들은 최근들어 이 단체의 환경보호운동이 낭만이나 신선함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다고 아쉬워 하기도 한다. 환경보호활동이 열정과 신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재정관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린피스활동의 중심국인 네덜란드에는 현재 약 70만명의 기부금 헌납회원이 있다. 이들은 거의 인구 20명당 1명꼴이다. 회원당 기부금 하한선은 韓貨로 따져 4천5백 원 정도로 이들은 매년 90억~1백12억5천만원쯤의 기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독일에는 함부르크에 그린피스본부가 있고, 회원은 네덜란드와 같은 70

만명이다. 인구 1백명당 1명꼴이 채 못된다. 그러나 회원을 당원으로 친다면 독일 그린피스는 여느 정당보다도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기부금 헌납뿐만이 아니라 가두시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리의 동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 아시아조직 日本뿐

독일에서 그린피스 회원 1인당 기부금 하한선은 2만5천원 가량이고 연간 기부금 총액은 1백8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독일 그린피스는 GPI제정의 40%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피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매우 약한 편이다. 일본의 동경에만 유일하게 조직이 있고, 회원은 약 1천5백명이다. <조선일보>

### 八角亭



“八角亭”은 會員여러분과 讀者여러분의 쉼터요. 討論場이다. 自然을 畏敬하고 사랑하는 뜻있는 이의 거리낌없는 所信, 所懷, 提言, 建議의 글월을 기다린다.

200字 原稿紙 5매내지 10매 範圍內에서 玉稿를 정리, 送付하시기를...